



진동세기 조절·양치물 흡입 가능한 전동칫솔

전동칫솔을 사용하다 불편해 다시 일반 칫솔로 바꾸는 소비자들이 많다. 치석 제거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세 아프거나 잇몸이 예민해져서, 혹은 익숙하지 않아서다. 한 젊은 공대생이 뇌병변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 신개념 전동칫솔을 개발했다. 칫솔이 스스로 입안의 양치물을 흡입(석션)해 별도의 접이식 용기(700mL)에 모아주는 제품이다. 흡입과 음파진동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전동칫솔은 진동의 세기를 10단계로 세분화하는 일반 전동칫솔로 다시 진화했다. 장애인·환자용으로 개발한 제품이 고령자, 유아, 일반인 등 전동칫솔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다.

◆‘세상에 없던’ 전동칫솔로 대중화 선도 경남항공고와 서울과학기술대를 졸업한 이승민 블루레오 대표는 고교 시절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어려서부터 암투병을 한 어머니 영향이 컸다. 이 대표는 “신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누군가 양치를 도와주더라도 양치 물을 제대로 빨기가 힘들어 받은 흐르고 반은 삼켜야 하는 일종의 ‘고문’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발명이 취미였던 그는 2014년 흡입 전동칫솔 연구를 시작했다. 수십 가지의 흡입 구멍 디자인을 수천 번에 걸쳐 테스트 했다. 약 3년간의 연구 끝에 분당 500mL의 양치물 흡입, 분당 1만4000회 부드러운 음파진동을 구현한 초진성 핸드타입 전동칫솔 ‘블루레오G100’을 개발했다. 투명한 칫솔대를 통해 나오는 LED(발광 다이오드) 불빛은 보호자와 요양사가 대



이승민 블루레오 대표가 양치한 뒤 입안의 물을 흡수하는 전동칫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복지시설서 아이디어 얻어 개발 ‘흡입 가능’ 환자용 제품 이어 세기 10단계 세분화한 칫솔 출시 이승민 대표 “해외시장 진출할 것”

상자의 입안 구석구석을 비추며 양치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석션 기능과 역류·누출 방지, 마이크로 워터 펌프 관련 특허만 한국에서 37건을 등록했다. 미국에서도 4건을 등록한 상태다.

◆“전동칫솔 시장은 여전히 블루오션” 이 대표는 창업경진대회 상금과 엔젤 및 민간 투자자금, 정부 지원금을 모아 2016

년 3월 회사를 차렸다. 창업 직후부터 재화로 보조기기를 유통하는 힘스인터 내셔널(셀바스 헬스케어)에서 13억5000만원 규모(개당 소비자가 25만원대)의 전동칫솔 납품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이후 복지시설과 요양원 등을 우선 파고든 결과 최근 롯데복지재단의 장애인용 청소년 보조기기 지원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

장애인용 제품은 칫솔질이 서투른 유아와 전동칫솔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용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지난 달 출시한 ‘블루레오S100’은 진동 세기를 1~10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동칫솔

블루레오	
설립	2016년 3월
위치	서울 강남구 테헤란동
제품	흡입(석션) 기능이 있는 전동칫솔, 단계별 진동 조절 전동칫솔
특징	장애인, 환자, 노인, 유아 등 사회취약자의 구강 세정 제품

대중화를 위해 가격도 시중 인기 상품의 절반 수준인 8만원대로 낮췄다. 저전력·저전압·저소음 저발열 칫솔 기술을 적용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이 대표는 “국내에선 전동칫솔이 전체 칫솔 시장의 20% 안팎에 그치지만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2016년 4조원에서 2021년 6조원으로 매년 8%씩 급성장하고 있다”며 “부드러운 음파진동으로 자극 없이 스케일링하듯 양치할 수 있는 전동칫솔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전동칫솔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필립스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로의 회사 이전 등 여러 조건을 고민하다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대신 최근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TBK창공’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thebest@hankyung.com)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www.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company & more

사무용 가구 강화하는 현대리바트 “2021년까지 매출 1000억원 달성”

사무용 가구업계 3위인 현대리바트가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섰다. 기존 고가 시장뿐만 아니라 공유오피스 증가로 인한 중저가 시장을 겨냥해 최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 광역 상권에 직영점도 잇따라 출점할 계획이다. 불황 여파로 지난해 770억원에 머물렀던 사무용 가구 매출을 2021년 1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단기 목표치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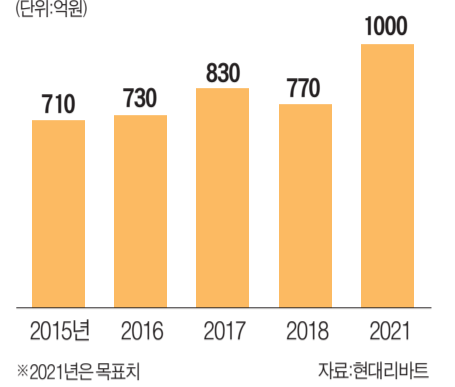
현대리바트는 16일 대전 대덕구에 1000㎡ 규모의 사무용 가구 전문 전시관 ‘리바트 오피스 대전 전시장’을 개장했다.

현대리바트 측은 “광역 상권 내 사무용 가구 매장은 처음”이라며 “인근 세차시와 오송·오창 등 새로운 사무·산업단지 수요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큰 규모의 직영점을 내기 시작한 리바트의 세 번째 직영 매장이다. 올해 경남 지역에도 직영점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엔 기존 사무용 가구 브랜드 ‘네오스’를 ‘리바트 오피스’로 전환했다. 리바트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현대리바트 측은 “올 들어 사무용 가구 전담 디자이너를 20% 늘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일하는 방식을 반영한 사무용 가구 신제품 20여 종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현대리바트는 최근 ‘스마트 오피스’로 대표되는 고가 시장과 공유오피스 등에서 주로 찾는 중저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사무용 가구 시장은 수년째 1조2000억원 규모에서 성장세를 멈췄지만, 최근 청년 창업 등이 늘어나면서 ‘소호(SOHO·개인사업자형)’ 사무용 가구 시장이 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저가형 사무용 가구 브랜드 ‘리바트하움’ 판매점을 지

현대리바트의 사무용 가구 매출 (단위: 억원)



대전에서 사무용 가구 전시관 개장 세종·오송 등 산업단지 수요 겨냥 스타트업 등 중저가 시장도 공략

전국 광역상권 공격적 출점 계획

난해부터 발 빠르게 늘리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판매점 150여 개를 개장해 총 350여 개로 늘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 오피스를 원하는 대기업 수요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이 주 소비자인 중저가 시장까지 한꺼번에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리바트가 이처럼 공격 경영에 나선 배경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쌓은 업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대리바트는 애초 신규 아파트에 가구를 납품하는 B2B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다.

현대리바트 측은 “800억원 수준인 사무용 가구 매출을 2021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NEW 새로 나왔어요

테팔, 손잡이 분리 ‘매직팬즈’ 냄비

테팔이 16일 손잡이가 분리되는 ‘매직팬즈’ 냄비와 프라이팬 신제품(사진)을 내놨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16cm 팬수냄비, 24cm·28cm 프라이팬으로 구성했다. 테팔이 자체 개발한, 10kg 무게를 견딜 수 있어 특허받은 손잡이인 매직팬즈를 탈·부착할 수 있다. 손잡이를 떼면 제품을 차곡차곡 쌓아 정리할 수 있어 수납이 편리하며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하다. 기존 매직팬즈 단품 시리즈와도 호환된다.

특수 3중 바닥으로 설계돼 열을 고르게 전달해 주며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등 모든 열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온수매트·마사지쿠션... 환절기 난방가전 ‘불티’

뉴스카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대비하고 환절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보온 기능을 갖춘 난방용 생활가전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실제로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간 G마켓의 난방제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국내 생활가전업계는 겨울 장사 준비를 갖추고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경동나비엔이 최근 출시한 온수매트 신제품 ‘나비엔 매트 더케어’는 주문이 폭주해 물량이 부족할 지경이다. 온수매트 내부에 흐르는 물을 스스로 살균할 수 있도록 탱크 내부에 전기 모듈을 설치해 매트 속 물에 세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제품이다. 집마다 난방 조



간이 다른 점을 감안해 포근한 온기를 유지하게 하는 온도 히팅 기능을 탑재했으며 외출 시 원격제어 기능을 비롯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계한 음성제어도 가능하다.

안마의자업체 휴테크는 온열 기능을 갖춘 마사지 ‘카카오프렌즈’ 마사지 쿠션을 선보였다. 충전식으로 무선 사용이 가능한 데다 귀여운 캐릭터의 모습이라 젊은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버튼을 누르면 온열 기능과 마사지를 작동이 시작돼 혈액 순환 및 근육 이완을 촉진해 피로 해소를 돕는다. 부드러운 감촉의 스웨이드 소재로 제작해 평소엔 쿠션으로 쓰면 된다.

신일산업의 ‘조절전 예코히터(사진)’는 특허받은 열증폭판을 탑재해 열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 고온의 열을 멀리까지 전달한다. 소비전력은 250~490W로 매우 낮아 겨울철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좌우 90도 자동 회전과 상하 20도 수동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화재 위험성을 막기 위한 4중 안전장치를 채택했다.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어 가정뿐 아니라 사무실과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하기 편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모십니다

2019 국제복합소재전시회 내달 13일 개막

국제복합소재전시회(JEC ASIA 2019)가 11월 13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1·C2홀과 D1홀)에서 열립니다. 복합소재는 자동차, 항공기, 기계, 전자제품, 해양, 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첨단소재입니다.

서울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경진대회도 열립니다. 혁신부품 및 제품전시관,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복합재료 관련 투어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주최: JEC그룹
후원: 서울시 전라북도

프랑스의 복합소재 전문전시 및 네트워킹 업체인 JEC그룹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미디어파트너로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코오롱, 효성, 한국기부, 한화첨단소재, 삼양사, 켈트랜드, 도레이첨단소재, 아카데미, 소마라 등 약 250개 국내외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경닷컴(event.hankyung.com)에서 사전 등록하면 전시장을 무료로 관람하고 각종 콘퍼런스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스폰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미디어파트너: 한국경제신문

yanolja

야놀자

29초

영화제

2019.10.08 - 11.08

가여행을 가면 좋겠습니다

여행이 필요한 누군가의 이야기

주제
_____가 여행을 가면 좋겠습니다.
여행이 필요한 누군가의 이야기

출품기간
2019.10.08(화) - 2019.11.08(금)

시상식
2019.11.21(목)

참가대상
제한 없음 (국내 외 누구나)

부문
청소년부, 일반부

총상금
1억원

출품방법
29초영화제 홈페이지(www.29sfilm.com)를 통해 온라인 제출

출품규격
29초 길이의 모든 영상 (제목, 크레딧 제외)

해상도 1920*1080, 1280*720
프레임 29.97fps(권장), 24fps
포맷 mp4(권장), mov, mpg, avi, wmv 등
표준코드 지원

문의
02-360-4029, director@29sfilm.com

자세한 내용은 야놀자 앱을 참고하세요